

연변교육출판사 · 연변인민출판사와 함께 가보는 ‘동북도서교역박람회’

연변교육출판사 -

교육출판인들의 77 년간 꿈과 노력 펼쳐보일 예정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장춘에서 열리게 되는 제 1 회 동북도서박람회는 동북지역에서 처음으로 있는 책의 축제로서 지방특색이 짙은 최고의 문화제품을 만나볼 수 있는 책 향연의 장이다.

연변교육출판사는 장춘국제회의 전시센터 2 호 전시관의 200 평방미터 되는 넓은 전시청에서 교육출판인들의 77 년간의 꿈과 노력을 펼쳐보일 예정이다. 그중 신간 《중국조선족민속문물집성》의 출간식은 이번 박람회의 ‘중요 행사’로 지정되어 ‘중점전시관’인 1 호 전시관에서 열리게 된다.

이번 박람회의 주요 전시를 책임지게 될 2 호 전시청은 아래와 같은 3 개의 영역으로 분류되었다.

종이도서 중심의 전통출판 영역

주제도서구역, 정품도서구역, 수상도서구역, 프로젝트도서구역, 어린이도서구역, 베스트셀러구역, ‘해외진출’도서구역 등으로 구성.

디지털도서 중심의 융합출판 영역

디지털출판플랫폼구역: 방문객들이 디지털 독서의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 《그림으로 보는 중국조선족세시풍속》가상도서

록 태블릿 PC와 스크린을 통해 연변교육출판사의 공식사이트와 온라인서점을 전시하며 온라인서점에서 책을 구매하는 방문객에게는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가상도서구역: 방문객들이 가상세계에서 독서하고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VR/AR 기술을 리용한 가상도서 체험구역을 준비하였다.

오디오북구역: 방문객들이 음성으로 책을 들을 수 있도록 오디오북을 재생하는 대형 터치 화면을 설치했다.

온라인 홍보를 위한 생방송 영역

조선어생방송구역: 교육과 인문, 자연과 사회를 아우르는 다양한 조선문 도서들을 홍보, 판매하여 교육 중심의 종합출판을 지향하는 연변교육출판사의 발전 가능성을 펼쳐보이게 된다.

한어생방송구역: 중도동방 (북경) 문화미디어유한회사, 북경정점세기광통물류유한회사 등 소속 분회사의 베스트셀러들을 홍보, 판매하여 연변교

육출판사의 대외 영향력을 넓히고 브랜드 가치를 확대하게 된다.

인터넷 생방송은 틱톡, 콰이서우 등 플랫폼을 통하여 진행되며 생방송을 통해 도서를 구매할 시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람회 기간 연변교육출판사가 준비한 문화행사

★ ‘민속의 매력을 발굴하여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고양하자’를 주제로 하는 《중국조선족민속문물집성》출간식.

★ ‘동년을 추억하고 고향을 그리며 현재를 소중히, 미래를 함께’를 주제로 하는 연변작가협회 지원도서 (총 6 권) 출간식.

★ ‘독서가 미래에로’를 주제로 하는 《연변황소 백년 아리랑》, 《옥탑방, 책 읽어주는 남자》작품의 저자 간담회.

★ ‘리백에게서 고시를 배워요’ - AI 시대의 융합출판 신제품 발표회.

★ 북경정점세기광통물류유한회사와 위탁 출판사간의 협력계약식.

이외에도 연변교육출판사에서는 길림대학교서관, 장춘시조선족군중예술관, 장춘시관성구조선족소학교 등 문화, 교육 기관에 유관 신간 도서들을 기증하면서 사회를 향한 공익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된다.

책으로 소통하고 즐기는 박람회, 책여행 떠나자

이번 박람회에 연변교육출판사에서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책을 만드는 사람과 책을 읽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책의 향연을 사람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문화의 고향 연변에서 77 년간 묵묵히 교육의 한우물을 파온 연변교육출판사는 국내 유일한 조선문 교육전문출판사이다. 연변교육출판사에서는 부단히 인문, 사회, 과학 등으로 출판영역을 넓히고 교육시장에 진출하였는데 오늘날에는 국내외 10 여개 분회사에 발행 범위가 전국 20 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를 웃도는 종합출판사로 자리매김하였다.

‘제 1 회 동북도서박람회’에 가서 연변교육출판사가 내놓는 책의 여행을 함께 해보도록 하자.

추천 1: 사회를 위한 ‘공익도서’

[언어보급] 언어의 규범, 역사적 기록과 학술연구에 도움을 주는 《조선말속담대사전》, 《정보기술용어사전》, 《조선어어휘편람》 등 도서들은 언어

의 발전과 전승에 가치가 높다.

[문화전승] 민족의 역사를 발굴하여 중화민족의 교양, 교류, 교양의 형성 과정을 기록한 《그림으로 보는 중국조선족세시풍속》, 《진달래고향의 향연》, 《해란강반을 빛낸 별들》 등 도서들은 중화문화를 풍부히 하고 깊이 이어가는 데 사료적 가치가 있다.

[문학창작] 문학과 삶이 스며들어 아름다운 풍경선을 이룬 《글에 비친 얼굴들》, 《문학시선 청춘기록》, 《중국조선족 효사랑 글짓기 공모전 수상작품집》 등 도서들은 독자들의 문화소양을 높이고 인격을 도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어린이교육] 생생한 그림과 간결한 글로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자연과 친구해요》, 《옛이야기그림책》, 《령리한 너구리》 등 도서들은 어린이들의 창의력을 자극하고 과학 지식을 보급하며 독서 습관을 기르는 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추천 2: 장르를 넘나드는 ‘인기도서’

[《중국조선족민속문물집성》(연변박물관 편, 한어문)] 책은 시공간을 넘나드는 민족 화첩으로 중국 조선족의 백년 역사를 집대성한 문화보고서이다. 이 책은 중국 조선족의 민속문물 300 여점을 수록하여 조선족의 다양한 고 풍부한 전통문화를 전면적으로 소개했다.

[《1949 년으로 돌아가다 - 그때의 소년, 그때의 꿈》(장수 저, 허영희 역, 조선문)] 책은 1949 년을 회상하며 24 명의 ‘중국 소년’이 24 개의 기억을 이야기하는 회억록이다. 책에는 따뜻하고 감동적인 인간미, 책임과 꿈이 함께 담겨있으며 고난 속에서 발견되는 청춘의 활력과 적극적인 진취 정신이 흐르고 있다.

[《연변황소 백년 아리랑》(김창석 편, 조선문)] 책은 아리랑 노래와 함께 백년의 비바람을 묵묵히 이겨낸 연변황소를 소개하고 있다. 책에서는 연변황소의 유래를 추적하고 조

선족 민중들의 삶에서의 연변황소의 중요한 역할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연변황소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온 민중들의 력사 현장을 생생하게 재현하고 있다.

[《옥탑방, 책 읽어주는 남자 (상, 하)》(김혁 저, 조선문)] 책은 자신의 옥탑방에서 다년간 경전작품들을 읽으며 느낀 매력 포인트를 작가 특유의 화법으로 소개한 독서록이다. 작가는 소설가이자 기자, 고품격 독자의 삼중 신분으로 경전작품들을 파헤치며 경전이 지닌 가치를 력설하고 독자가 인생에 미치는 영향과 글쓰기의 깨달음을 공유한다.

[연변작가협회 지원도서 (고소수, 주하 등 저; 한어문)] 책은 변경문학의 독특한 매력과 깊은 가치를 보여주는 향토작품의 집합이다. 총 6 권으로 된 이 시리즈는 연변지역의 풍토인정과 력사문화를 정감적으로 묘사하며 고향에 대한 애절한 마음과 미래에 대한 장미빛 기대를 아름답게 그리고 있다.

연변인민출판사 -

국가길림민문출판기지 전시구역서 손님 맞이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장춘국제회의전시센터에서 성대히 펼쳐지게 되는 제 1 회 ‘동북도서교역박람회’에서 연변인민출판사는 2 호관 국가길림민문출판기지 전시구역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게 된다.

이번 제 1 회 동북도서교역박람회에 연변인민출판사에서는 우수출판물전시구역, 디지털출판프레젠테이션(演示区)구역, 인기도서판매구역, 생방송교류구역, 문화창의상호작용전문구역 등 여러개 구역을 설치하여 선보이게 된다.

우수출판물전시구역

이번 박람회에서 연변인민출판사는 10 미터 길이의 벽면에 출판사 설립 74 년래의 력사를 그림과 글로 다채롭게 펼쳐보이게 된다. 연변인민출판사의 발전 로정과 풍성한 성과들을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외에 또 출판사의 진귀한 고서간행물, 국가급·성부급 수상 도서, 최근년간 출판된 중점도서, 주제도서, 창작정품도서, 중화우수출판물번역프로젝트도서, ‘나가기’(走出去) 프로젝트도서 및 출판사에서 주관하는 10 종의 정기간행물을 중점적으로 전시하게 된다.

디지털출판프레젠테이션구역

연변인민출판사가 디지털출판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새로운 시대의 디지털출판 정품을 구축하여 전통출판과 신흥매체의 융합발전을 실현한 풍성한 성과를 중점적으로 전시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현대과학기술을 운용하여 능력을 부여하고 전방위적으로 연변인민출판사 도서를 립체화하여 전시함으로써 독자들이 출판사 도서 내용을 더욱 심층적으로 료해하고 몰입식 체험에서 과학창조의 감동을 음미할 수 있도록 한다.

정품力作 특별행사로 문화려행 마련

제 1 회 동북도서교역박람회를 맞으며 연변인민출판사에서는 최근 몇 년간 출판한 정품力作들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세차례의 특별한 행사들을 앞설 들어 기획하여 독자와 번역가들이 깊이있는 교류를 전개하고 도서의 매력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도록 문화려행을 준비하였다.

《장백고향정 - 상해지식청년 길림성에서》 신간 도서 추천소개회

시간: 5월 17 일 14:00-14:40
장소: 장춘국제회의전시센터 2 호관 연변인민출판사 전시구역

《장백고향정 - 상해지식청년 길림성에서》는 회고성 산문집으로서 저자는 1968 년부터 1978 년까지 길림성에 하향한 상해지식청년이다. 하향 기간에 그들은 백산흑수에 뿌리를 박고 본지 인민들과 두터운 감정을 쌓았다. 도시로 돌아간 후 이런 기억과 감정은 증가될 뿐 줄어들지 않았으며 일부 지식청년은 지금도 여전히 심후한 감정을 견지하고 있다. 또 일부 지식청년들은 길림대지에 남아 자신의 일터에서 길림의 제반 사업의 변형 발전을 위해 자신의 필생의 힘과 열을 기여했다.

조선족 녀류작가 허련소의 《위씨네 사당》 중문판 신간 출판 및 독자 미팅

시간: 5월 18 일 9:00-9:40
장소: 장춘국제회의전시센터 2 호관 연변인민출판사 전시구역

인기도서판매구역

연변인민출판사에서는 800 여종, 3,000 여권의 도서 정품 력작들을 제 1 회 동북도서박람회에 선보이게 된다. 전시회 기간에 연변인민출판사에서는 동시에 온라인 (마이크로 스토어와 생방송실) 과 오프라인 (전시회 현장과 출판사 문화서점) 에서 문화 헤빈 활동을 내놓게 되며 전반도서 구매와 증정의 기초 우에 기타 다양한 우대활동들도 펼치게 된다.

생방송교류전문구역

전시회 현장에서 연변인민출판사에서는 두개의 생방송실을 설립하여 전문 생방송 일군과 일선 편집자를 초청하여 여러개의 생방송 플랫폼을 통해 전시회 기간에 중단없이 생방송을 진행하고 우대하여 책을 판매하면서 인기를 모으게 되며 광범한 독자들을 위해 인터넷 전민 문화성연을 창출하게 된다.

문화창의상호교류전문구역

연변인민출사에서는 도서 내용의 주제와 특색에 근거하여 여러가지 문화창의 제품을 개발하였는데 일부는 사은품으로 소비자에게 보답하고 일부는 상품 정가로 판매하게 된다. 광범한 독자들은 현장에서 형식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전시회를 구경하는 즐거움을 제고할 수 있다.



《长白故乡情——上海知青在吉林》新书推介会

장편소설 《위씨네 사당》은 중국 강서성의 한 농촌을 배경으로 민속학, 류리학의 관점과 시각으로 위씨가족 5 대의 가족사를 묘사하고 큰 배경에서 한 대가족이 농촌에서 도시에 이르기까지 굴곡적이고 변화무쌍한 력사를 예술적으로 재현했으며 가정 가족 단위로 그 속에 얹힌 혼인관계, 혈연관계, 가족관계, 세대관계와 집단관계 등과 력사적, 문화적 뉴대를 서술하고 탐구했으며 한족과 조선족이 화목하게 동존하는 사랑의 뉴대와 가족공동체를 함께 건립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았다.

장편소설 《위씨네 사당》은 도시화, 세계화 시대에 한족청년과 조선족처녀의 사랑, 혼인 및 가족과 사회의 반응을 주선으로 하는 장편소설로서 혈연을 초월한 새로운 가정모식을 표현했다.

‘경전 전승 · 문화 공유’ 정품도서 독서 공유회

시간: 5월 19 일 9:40-10:20
장소: 장춘국제회의전시센터 2 호관 연변인민출판사 전시구역

18 차 당대회이래 출판된 정품도서, 중점도서를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책을 매개로 조선족가무 공연, 악기연주, 상황극 공연과 결합하여 중국 조선족의 음식문화, 복식문화, 무용예술, 무형문화유산 프로젝트 등을 전시한다. 이와 또 현장에 깜짝 교류 일환을 설치해 독자들이 조선족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